

---

서 평

---

[www.kci.go.kr](http://www.kci.go.kr)



## 문학과 현실의 사이, 그리고 1973년과 2018년의 사이

[서평] 이우성·임형택 편역(2018), 『이조한문단편집』 1-4, 창비,  
470+484+496+548쪽.

황재문\*

### 1. 1970년대 한국학과

『이조한문단편집(李朝漢文短篇集)』의 의미

『이조한문단편집(李朝漢文短篇集)』은 1970년대 한국학을 대표하는 성과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다. 이 책이 한국 한문에 가장 밝다고 알려진 두 학자가 10여 년 동안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작품의 선발, 번역, 해설에 이르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역작이며, 농업경제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역사를 재구해 나가는 ‘내재적 발전론’의 시각을 뒷받침 할 만한 구체적인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 저술이었기 때문이다.

『이조한문단편집』은 1973년에 1권이 일조각에서 간행되었고 1978년에 2권과 3권이 같은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총 39종의 자료집에서 뽑은 176편의 작품을 주제에 따라 6부로 나누어 수록하고, 다시 박지원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작품을 모은 ‘연암별집(燕巖別集)’을 부록으로 붙였다.<sup>1)</sup>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지원하는 대형 역주사업이 이루어지고 국내외에서 각종 문헌자료의 DB가 구축되었으며 각종 공구서가 널리 보급된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 책의 규모는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1970년대의 상황은 현재와 많이 달랐다. 직접 해외에 나가 자료를 찾아다녀야 했고, 국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소장처를 방문해서 열람해야 했다. 따라서 완간에 이르기까지 들인 노력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것이다.

물론 아무리 많은 시간과 큰 노력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높은 연구사적 가치를 지닌 저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전의 것과 구별되는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1권 발간 직후의 서평에서 “대담한 시도”<sup>2)</sup>라고 한 점은 흥미해볼 만하다. 문학사 뿐 아니라 사회학이나 경제학 등에서 무시하거나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료들을 모아서 번역하고 해설하였고 여기에 ‘한문단편’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처럼 평한 것이니, 여기서 1970년대 시점에서의 새로움의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새로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있던 자료를 새로운 영역으로 옮긴 것이기도 하고 알려져 있던 자료를 새로 발굴하여 새로 마련한 영역을 더욱 풍부하게 한 것이기도 하다. 초판 서문에서는 이 책에 수록한 글들이 흔히 ‘패사소품(稗史小品)’이라 하던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표현이 졸박(拙朴)하면서도 진실이 그대로 생동하여 독자에게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으며, 장덕순의 서평에서는 “무명씨(無名氏)의 짤막짤막한 설화류(說話類)”로 “이야기꾼들이 늘어놓는

1) 개정판에서는 ‘별집 : 연암소설’이라 하였다. 개정판에서는 수록 작품 가운데 1편을 제외하고 1편을 추가하였는데, 그 결과로 1~6부에 수록된 작품의 총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장덕순(1974), 「한문소설의 재인식」, 『창작과비평』 31호, p. 132.

고담(古談)”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문예적으로 승화된 문학작품으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 — 단편소설에 가까운 것 — 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정사(正史)가 아닌 ‘패사(稗史)’나 소설이 아닌 ‘야담(野談)’이라 불리며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이 책을 통해 되찾게 된 “국문학 유산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언급되기도 했다.<sup>3)</sup> 요컨대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자료를 모으고 체계화하여 학계의 연구대상으로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한문 단편’을 제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 성과들의 존재는 이 책에서 제시한 ‘새로운 자료들’이 이제 학계의 공식적인 연구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이 책에서 붙인 제목이 해당 작품의 제목으로 통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현재의 연구자들이 1970년대 상황에서의 ‘새로움’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할 만한 변화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조한문단편집』이 지닌 새로움은 ‘한문단편’이라는 갈래의 발굴 뿐 아니라 18세기 이래 조선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개정판의 서문에서 이 책이 “현실성을 포착한 소설인 동시에 흥미롭게 읽히는 생생한 역사”라고 자평하고 『장길산』이나 『객주』와 같은 작품들에서 당대의 풍속사를 재현하는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였으니,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하는 독서물을 제공한다는 점은 오히려 더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일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역사상이란 어떤 것인가. 개별 작품의 해설에서 직접 서술하기도 했지만, 책을 구성하는 6부의 제목 — 부(富), 성(性)과 정(情), 신분 동향(세태 1), 시정 주변(세태 2), 저항과 좌절(민중 기질 1), 풍자와 골계(민중 기질 2) — 으road도 그 대강을 다음과 같이 짐작해 볼 수 있다. 18세기 이후의 조선에서는<sup>4)</sup>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규모로 부를

3) 조동일(1978), 「서평 : 이조한문단편집」, 『한국학보』 제4권 3호, p. 193.

4) 18세기 이후의 작품을 수록하였으니, 대략 18세기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인간의 성정(性情)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나타난다. 또 신분 질서가 흔들리면서 시정 주변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인간상이나 현상들이 출현한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민중은 저항하고 좌절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풍자와 골계를 통해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 물론 이러한 개요를 통해서는 개별 작품들에 담긴 조선 사회의 다양한 면모들, 예컨대 추노(推奴), 의적, 예술, 여항 풍속 등과 같은 화제의 존재를 짐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6부의 구성을 통해 제시한 큰 구조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그런데 이 구조 또는 역사상에 따라 개별 작품을 특정한 부분에 배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곤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작품 속에 6부 가운데 복수의 항목에 관련될 만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동 도서관(都書員)」의 경우에는 “곤궁한 선비가 권모술수를 써서 큰돈을 벌었다는 내용”으로 파악하여 ‘부(富)’에 포함시켰지만, 해설에서는 선비가 아전 구실을 자청해 담당했다는 설정이 “신분질서의 동요를 반영하는 일면(개정판 1-227)<sup>5)</sup>”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1부와 3부에 해당하는 요소가 공존하는 셈인데, 신분 질서의 동요와 부(富)의 축적은 서로 연관될 만한 요소이니 이것이 특별한 사례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한편 6부로 나누는 구성은 이야기 전개에서 부수적일 수 있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제1부인 부(富)에 수록된 「송유원(宋有元)」의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 이 작품의 해설에서는 서리의 아들 송유원이 “개성의 상인[松京大戶]”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은 데 주목하여 개성상인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

---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별 작품에 담긴 이야기 또는 화소의 기원을 따져보면 이와는 다른 시대의 면모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도 있을 듯하지만, 그 비중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5) 이하에서는 『이조한문단편집』을 인용할 때 초판 또는 개정판 여부와 권수 및 면수를 이와 같이 밝히기로 한다. ‘개정판 1-227’은 『이조한문단편집』(개정판)의 1권 227면을 뜻한다.

고 있다. 이 작품에서 개성상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작품 후반부에 주목하면 송유원이 원래 복을 타고난 인물이라는 데 이야기 전개의 핵심이 있다고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이 씨 집 아들’의 어려움을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同居]’으로 해결했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역시 제1부에 수록된 「지옥 순례」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누구나 그 샌님의 어리석음과 상놈의 능청스러움에 배꼽을 잡았다.(聞者, 笑生員之愚而常漢之譎矣.)”라고 끝맺은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어리석은 양반을 속이는 이야기인데, 작품 해설에서는 “농촌을 배경으로 한 빈부의 격차(개정판 1-265)”에 주목하였다. 제3부인 ‘신분 동향’이나 제6부인 ‘풍자와 골계’에 포함하더라도 무방할 듯하며, 이야기의 핵심을 따진다면 제6부에 수록하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 언급한 분류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논쟁거리는 아니며, 여기서 제기한 몇 가지 의문점 또한 주관적인 독해의 결과물이므로 그것이 더 정답에 가깝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반면에 특정한 작품이 특정한 주제에만 배치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두 분이 인식하고 있었음은 몇 편의 해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6부의 구성을 취한 것은, 한문 단편을 통해 역사적 현실을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분류의 엄밀성을 갖추기 위해 역사상의 제시라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곤란한 일일 수 있다. “이조 후기의 사회경제사, 사상사를 다루고 있는 국사학도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로서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초판 서문의 언급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문학 연구에만 한정되지 않는 목적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6) 다음은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이 작품[세 딸]이 시정인의 모습을 묘사한 점에서 제2권 제3부 ‘세태’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영남 선비」나 뒤에 나오는 「안동 도서관」 등과 같이 작중 정씨가 벼슬아치와 일정한 관계를 맺어 재물을 모은 점을 고려해서 여기 제1부 ‘부(富)’에 속하도록 했다.”(개정판 1-217)

분과 학문을 넘어서 ‘한국학’ 연구의 발전에서 갖는 의의가 큰 것은 결코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2. 2018년 개정의 범위와 양상

『이조한문단편집』의 개정판은 2018년도에 창비에서 4권으로 간행되었다. 개정 작업이 2012~2017년에 16명의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독회를 거쳐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니, 이전과는 달라진 면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개정판 간행에서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개정판 서문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지 45년, 완간이 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정판을 내놓는 데는 물론 까닭이 없지 않다. 기본적으로 유효 수요가 소실되지 않은 때문이지만, 당초부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서 관련한 연구가 진전되었고 관련 자료들이 속속 발견되었다. 수정해야 할 사실과 보충을 요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가 살아온 반세기는 변해도 엄청 변했다. 급변한 생활문화에 따라 달라진 독자의 언어감각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큰 틀은 바꾸지 않고 원규모를 유지하는 선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 편차 또한 원형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개별 작품에서 1편을 빼고 2편을 추가했다. 빠진 1편은 제6부의 「구변(口辯)」인데, 이것은 본디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실렸던 것이어서 『한문서사의 영토』에 유몽인의 작으로 돌려놓았다. 대신에 유경종(柳慶種)의 「김씨가 이야기(金氏家故事)」가 제3부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별집 연암소설’에서 「우상전(虞裳傳)」은 작품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아 제외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겨져서 추가한 것이다.<sup>7)</sup>

공간 4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유효 수요가 있다고 한 서두의 언급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 이 책이 이미 ‘한문 단편’ 더 넓게는 한국학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굳이 개정이 아니라도 재간행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수정과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고 새로운 언어감각에 맞출 필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개정판 간행의 기본적인 취지일 것이다. 초판과 개정판을 대비해서 읽어보면 특히 후자를 위한 노력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수정을 마친 결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수정과 재수정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극히 드문 사례이지만 어휘를 수정하면서 완전히 통일하지 못한 사례도 보이는데,<sup>8)</sup> 이런 사례는 오히려 수정과 교정 작업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듯하다.

수정과 보충에 관한 개정은 주로 작가 확정을 비롯한 실증적인 성과의 반영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개별 작품의 해설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 있지만, 제3권 말미의 ‘출전 해제’와 ‘수록 작품의 작가 일람’에서 보다 체계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편찬에 활용된 문헌의 총수는 39종에서 41종으로 늘었는데,<sup>9)</sup> 추가된 문헌은 작가 확정에 도움이 된 『기리총화(綺里叢話)』와 새로 수록한 작품 「김씨가 이야기(金氏家故事)」가 실린 『파적(破寂)』이다. 이에 따라 내용이 추가된 작품도 있는데, 결말 부분이 추가된 「홍길동(洪吉同) 이후」가 이에 해당한다. 추가된 부분은 군도(群盜)들에게 재물을 분배하여 돌려보내는 일

7) 임형택, 「개정판을 내면서」, 『이조한문단편집』, p. 5.

8) 제5부의 「척검(擲劍)」에서는 “적장(賊將)”을 “도적 대장”으로 바꾸려 한 듯한데, “적장”이라는 표기가 일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드문 사례이며, 작품 이해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9) 『이조한문단편집』, 개정판 3권의 454면에 “이용된 자료집”의 총수에 대한 설명이 보이는데, “총 39종”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는 잘못이며, “총 41종”이 정확한 숫자이다. 또 개정판에서는 16번(기리총화)과 22번(파적)이 추가되었으니, ‘순서 번호’에 따라 제시한 문헌 성격에 대한 서술 또한 수정해야 한다.

화와 작가의 논평(論評)인데, 이를 포함하게 되면 심진사(김진사)가 군도들을 “천리의 바른 길(天理之公)”로 이끌었다는 데 이야기의 초점이 놓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개정판 서문에서는 큰 틀과 규모, 그리고 편차는 원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증보’가 아닌 ‘개정’인 이상에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이미 ‘한문 단편’ 연구의 출발점이 된 상황이며, 일부 작품은 여기서 붙인 제목이 작품 제목으로 통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작품의 제목을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은 현재의 연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sup>10)</sup> 이처럼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대신에 속편에 해당하는 책을 따로 출간하였는데,<sup>11)</sup> 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작품 뒤에 붙인 ‘작품 해설’에도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다. 실증적인 성과를 반영한 서술이나 어휘 또는 표현을 수정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작품의 의의나 가치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부분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① 한편 한 남자에 여러 여자가 인연을 맺는 서사구조는 『구운몽(九雲夢)』 같은 국문소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학귀로(太學歸路)』, 개정판 1-319)

(1)-② 끝으로 언급해둘 점이 있다. 흥동지의 집을 털어올 적에 무당 등에게 현혹하는 말을 하도록 하는 삽화는 이해조의 신소설 『구마검(驅魔劍)』에서도 읽을 수 있다. 서사의 맥이 통하면서 이용하는 방향은 서로 다르다. (『옥인형(玉人形)』, 개정판 2-433)

10) 제목을 바꾼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1부의 「부농(富農)」이 한 가지 사례인데, 초판의 제목은 ‘경영형 부농’이었다. 이는 현재 한국사학계에서 ‘경영형 부농’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게 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작품 해설에서는 ‘경영형 부농’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11) 임형택(2012), 『한문서사의 영토』, 태학사. 그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는 심경호(2013), 「한문서사의 영토 확장과 ‘이야기’의 진실」, 『창작과비평』 41권 1호 참고

(1)-③ 20세기에 들어와서 한때 널리 유행했던 ‘봉이 김선달’ 이야기에 이 내용이 주요한 삽화로 들어가기도 했다. ‘봉이’라는 그의 별호는 바로 이 삽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봉(鳳)」, 개정판 3-267)

(1)-④ 네 편의 소재가 제각각이고 하나로 묶이는 의미를 찾기도 어렵지만 인간의 선심과 양심을 지향하는 면에서 공통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변사행(邊士行)」, 개정판 2-148)

(1)-⑤ 이 서사의 내용을 각도를 달리해 생각하면 밖에서 부임한 수령은 그 고을의 토착적인 집단에 의해서 완전히 따돌림을 받아 농락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광인(狂人)」, 개정판 3-235)

(2)-① 이 작품은 이런저런 삽화들을 그냥 늘어놓은 것 같아서 스토어의 일관된 구성이나 인물의 형상화로 볼 때 미흡하다 하겠다. … 이 작품은 벽초(碧初)의 역사 소설 「임꺽정」(林巨正)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옥적(玉笛)」, 초판 3-15)

(2)-② 이 후반부의 내용은 민중 세계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데서 관념적으로 꾸며진 것일 것이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초판 3-57)

(3)-① 이야기가 대적을 기포(譏捕)하는 관군의 측면에서 서술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를 민중 쪽에 서서 보아야 할 것이다. (「광적(獷賊)」, 초판 3-62) → 이야기가 대적을 기포(譏捕)하는 관군의 측면에서 서술되어 있긴 하나 이를 민중 쪽에 서서 볼 필요가 있다. (「광적(獷賊)」, 개정판 3-98)

(3)-② 이것은 신분제 변화의 일보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曙)」, 초판 2-175) → 호랑이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한다거나, 할멈이 위기에 처한 상전을 구하기 위해 손녀를 바치는 서사는 불합리하고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신분제 사회가 급전하는 시대로 오면서 서사가 엉뚱하게 진행되기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벽(曙)」, 개정판 2-260)

(1)은 개정판에서 추가된 사례이다. 작가 확정을 비롯한 실증적 성과에 대한 해설 이외에도 이나 다른 작품과의 관련성에 대한 견해가 개정

판에서 일부 추가되었음을 ①~③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기 국문소설, 신소설, 설화와의 연관 관계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문 단편이 고립된 서사 갈래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④는 네 개의 이야기를 묶어서 수록한 것인데, “내용이 다른 4가지의 이야기로 공토된 주제가 없기에 제보자의 이름을 따서 변사행이라 제목을 붙였다.”(초판 2-90.)고 해설에서 밝힐 정도로 이야기 사이에 소재 또는 주제 상의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개정판에서는 “인간의 선심과 양심을 지향하는 면”에서 이야기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설 말미에 덧붙인 것이다. 일종의 보완 작업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⑤는 어느 고을의 이속들이 형벌이 가혹한 원님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내쫓는 이야기로 풍자적인 성격이 있는 작품이다. 개정판에서는 “각도를 달리해 생각해보면”이라는 말을 앞세워 이 이야기에 대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덧붙였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원님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은 그대로이지만 원님을 함정에 빠뜨린 ‘토착적인’ 이속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2)는 초판의 서술 가운데 일부를 개정판에서 삭제한 사례이다. ①은 초판에서 소설 『임꺽정』과 대비한 부분을 개정판에서 삭제한 것인데, 이는 원출전을 확인함으로써 임꺽정 관련 설화의 전승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한 결과로 이해된다. ②는 작품 후반부의 이야기, 군도들을 회유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에 대한 비판인데, 초판에서는 말로 회유하고 재물을 나눠주거나 몇 사람을 군령으로 참수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민중 세계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비판이 적절하지 않거나 다소 주관적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3)은 개정판에서 초판의 서술 일부를 수정한 사례이다. ①은 해설의 어조를 바꾼 사례인데, 이야기에 대한 유일한 해석을 강요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②는 추노(推奴)를 다룬 작

품들 가운데 하나인 「새벽(曙)」의 해설 말미 부분인데, 원래는 종이었던 노파가 옛 상전의 손자와 자신의 손녀를 결합시킴으로써 위기를 해결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초판에서는 신분이 다른 남녀가 “결합”하는 상황을 ‘신분제 변화의 일보 전진’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한 듯한데, 개정판에서는 상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손녀를 “바치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부정적으로 본 듯하다.

‘작품 해설’의 수정 사례는 이들 이외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작품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작품 해설의 위치를 옮긴 점은 공통된 변화인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초판에서는 해설을 작품 앞에 두었는데, 이는 작품을 읽는 방법 또는 작품 해석의 방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sup>12)</sup> 개정판에서 작품 해설을 뒤로 돌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자의 자유로운 독서 가능성을 높인 셈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원문을 별도의 책으로 간행한 것도 적어도 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편집 방향인 듯하다.

### 3. 2018년에 다시 읽는 『이조한문단편집』의 의미

『이조한문단편집』은 이미 한국학의 고전에 속하는 책이다. 학계를 대표하는 원로가 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를 개정한 데는 분명히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잠시 살펴본 것만으로 이를 짐작하려는 것은 분명히 무리한 일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개정판을 접하게 되는 감상을 조금이나마 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듯하다.

첫째는 문학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조한문단편집』은 ‘한

12) 장덕순(1974), 「한문소설의 재인식」, 『창작과비평』 31호, p. 137.

문 단편'이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 18세기 이래의 한국 역사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한 책이므로, 문학과 현실(역사)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연구 성과이자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지만 역사(또는 현실)가 문학에 반영된다는 식의 관점을 취한 것은 아니다. 한문 단편의 정착 과정에 대한 임형택 선생님의 지속적인 연구가 있었고,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이 개정판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구연화 과정'과 '기록화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함으로써 당시의 역사적 현실이 어떻게 한문 단편 속에 녹아들 수 있었는지를 살핀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한문 단편에서 역사를 읽어내는 방법은 더욱 입체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개정판에서 추가된 '작품 해설'의 서술 가운데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야기의 전체 구조는 앞의 「광작」과 유사하다. 양반 자제가 곤궁한 처지에서 치부를 하는 과정, 중간에 찾아온 형을 냉대하는 삽화, 형제가 부를 함께 향유하고 벼슬길로 나가는 결말부까지 대략 일치한다. 그럼에도 세부로 들어가면 다른 면이 많은데, 「삼난」은 상업유통이 성행한 지역을 배경으로 삼아 기존의 가치관을 훨씬 적극적으로 탈피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어렵게 찾아온 형에게 밥값, 술값을 기어이 받아내는 희화적인 장면은 달라진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다. 「광작」은 19세기 전반기에, 「삼난(三難)」은 19세기 후반기로 넘어와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양자의 시대차를 반영한 면을 느끼게 한다. (「삼난(三難)」, 개정판 1-111)

한문 단편 두 편을 비교하여 서로 유사성과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문헌으로의 정착 시기와 관련하여 해석한 사례이다. 역사적 현실의 차이보다 기보다는 문헌 정착 시기의 차이라는 것이 해석의 요점인데, 이러한 시각이나 태도는 초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한문 단편이라는 문학 작품들에 현실(역사)이 어떻게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구연'이나 '기록' 이외에도 선행하는 이야기와

의 관계에 대한 정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번안’의 문제인데, 『이조한문단편집』의 제2부에 포함된 「상은(償恩)」의 해설에서도 이미 ‘번안’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해외 자료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유의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이미 「용산 차부(龍山車夫)」가 당나라 전기의 번안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으며,<sup>13)</sup> 『동야회집』 등의 중국 작품 수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sup>14)</sup>

둘째는 2018년에 적합한 새로운 ‘이조한문단편집’의 편찬에 대한 문제이다. 1973년과 2018년 사이에는 연구 환경이나 사회적 분위기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조한문단편집』에서 설정한 6부의 주제와 작품들이 1970년대 한국학의 역량과 관심사에서 도출한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한국학은 어떤 자료집이나 어떤 연구를 요구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들의 맥락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쩌면 현재 시점에서의 문제의식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 결실이 『이조한문단편집』이 보여준 ‘새로움’에 견줄 만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13) 김동욱(2004), 「<용산차부(龍山車夫)> 이야기의 번안야담적 성격」, 『반교어문연구』 17집. 구수훈(具樹勳)의 『이순록(二旬錄)』에 실린 이야기의 기원을 당나라 십아지(沈亞之)의 <풍연전(馮燕傳)>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14) 이강욱(1996), 「동야회집의 해탁(諧鐸) 수용 양상」, 『한국한문학회연구』 19집; 이강욱(2008), 「동야회집의 중국 필기소설 전유와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48집.

